

해 외 취 업?

계명문화대학교 호텔항공외식관광학부 정진혁

왜?



누구나 대학을 졸업하고 무엇을 해야 할지 고민이 많을 것이다. 그 중에 선택지는 몇 가지 없다. 보통 취업을 위해 이력서를 만들고, 새로운 경험을 쌓기 위해 여행을 갈 수 있고, 당장 먹고 살기 위해 알바를 한다. 그 중에 나는 해외취업을 선택했다. 내 친구들은 ‘굳이?’ , ‘ 왜?’

‘왜?’ 라고 되물어 보면 나는 할 말이 없었다. 구체적인 목표와 확신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러고 ‘그냥 좋은 기회가 있어...’ 라고 말 할 뿐.

학교에서 k-move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다.

호주에서 전공을 살려 보는 것은?’ 라는 질문을 받고,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된다. 만약 내가 호주를 간다면 무엇을 준비해야하고,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영어만 된다면 나의 최종목표인 바리스타의 기회도 있지 않을까? 아니면 호주에서 육가공을 배워서 드라이 에이징을 공부해 보는것은 어떨까? 라는 목표를 가지고 호주 해외취업반을 선택하게 되었다. 이 프로그램은 나에게 새로운 경험을 가져다 줄 것이라 생각했다.

영어 실력을 다소 걱정하며 처음 수업을 시작했다. 하지만 수업은 그 걱정을 줄여줄 만큼 잘 구성 되어있었다. 크게 3가지로 구분되었는데, 원어민과 수업, 면접 준비, 호텔에서 주로 사용되는 말들을 주로 배우며 기초부터 탄탄하게 쌓을 수 있었다. 물론 영어는 재미없었다.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이 좋았고, 원어민에게 모르는 것을 물어보고 설명을 해줄 때 이해하는 자신이 신기했다. 그러면서 시간이 훑 흘러 비행기 표를 결제 할 때가 되었다. 여전히 내 영어실력은 쓰레기인데 벌써? 그래서 더 열심히 했었다. 매일 마치고 2시간은 수업을 복습하고 남은 과제를 하다가 학기가 끝났다.

어? 세부?

학교에서 약 12주간의 수업을 지나고, 어학연수를 위해 세부에 도착하고,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사용하는 시간이 왔구나 하며 기대감과 불안함이 올라왔다. 학생들은 일본, 중국, 한국 등 아시아계통이 많이 있는 학원이 었다. 수업은 1:1수업과 그룹수업으로 있었는데, 정말 재미있게 수업을 진행했다. 수업을 처음 들어간 날에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지만 선생님들

이 친근하게 인사해주며, 불편하지 않게 이야기를 이끌어주는 방식의 수업을 했다. 여전히 영어실력은 최악이지만 일본인 친구들은 많이 사귀게 되었고, 같이 영어공부를 하거나, 자신의 나라를 이야기하면서 한마디의 말이 늘게 되었다. 주말이 되면 밖에 나갈 수 있었는데. 새로 사귄 친구들과 관광을 하며, 새로운 추억들을 많이 만들었다. 세부의 6주는 정말 짧게 지나갔다. 하지만 가장 많은 추억이 만들어진 좋은 곳이다. 기회가 된다면 꼭 돌아오고 싶을 정도로 좋은 기억이 많이 남았다.



드디어 호주?!



호주에 오기까지 정말 많은 시간이 들었다. 약 4개월이라는 시간이 들었고, 나의 영어실력은 최악이지만, 생활하는데 불편함 없을 정도로 늘었다. 물론 이해하지 못하는 말이 많지만, 커피만 주문 할 수 있다면 문제가 되지 않았다. 호주에서 첫 주는 신기함의 연속이었다. 백팩커에서 1주일간 살았는데 오전에 수업을 듣고 와서 3시에 집에 돌아오면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거나, 친구들과 밥을 해먹으며, 외국인 친구들과 맥주를 마시며 이런 저런 이야기를 했다. 외국은 느긋하게 움직이지만, 게으르지 않았다. 새벽

에 일어나서 조깅을 하거나, 자신이 목표 한 것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보기 좋았다.

어학원에서는 Certificate Hospitality 3를 배웠는데 정말 미칠 것 같았다. 수업의 내용은 번역을 하면 기본상식이지만, 영어로 수업을 진행하고, 과제를 영어로 내는 것이 힘들었다. 2주정도 지났을 때, 트레이너의 말을 어느 정도 이해 할 수 있었고, 보다 편안하게 과제를 할 수 있었다.

실습은 Holiday Inn Cairns Harbourside에서 실습을 하게 되었는데, 조식 파트를 맡아 했다. 일의 강도는 한국의 3분에1정도로 쉬웠고, 친절하게 하나씩 잘 알려주었다. 다행히 일본인 수 셰프는 매우 쉬운 단어로 가르쳐주어서 쉽게 일을 배울 수 있었다. 오랜만에 칼을 잡고 일을 하는 것에 만족을 느끼면서 새로운 요리들을 많이 만들 수 있었다.

하지만 생활비는 떨어져갔고, 처음 하게 된 일을 설거지



를 시작하게 되었다. 영어도 잘못하고, 커피 주문만 할 수 있던 나에게 키친 핸드는 나쁘지 않은 선택이었다. 학원이 끝나면 일하러 갔고, 실습이 끝나도 일하러 갔다. 시간이 지나고 이 가게에서 쿡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도 받게 되었다. 호주라는 나라는 개인의 노력과 목표만 있다면 충분히 성장 할 수 있고, 좋은 경험을 하기 좋은 나라라고 생각한다.